

타이거즈 'V13' 위한 배터리 환상호흡 기대하라

‘안방의 중심’ 김태균·‘기대주’ 한준수·한승택 등 필승 의지 다져 타케시 코치 “한준수 성장세·수비는 한승택...도루 저지율 제고”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미국 어바인=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가 ‘연패’ 도전을 위해 배터리에 세밀함을 더한다.

KIA는 지난 시즌 선발전 준비상에도 막강 화력과 탄탄한 불펜진으로 우승까지 내달렸다. 우승 질주에는 포수들의 눈부신 활약도 있었다.

‘안방’은 최근 KIA의 약점으로 꼽혔던 자리다. 그만큼 포수 카드를 놓고 가장 많은 트레이드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시즌 포수는 든든한 우승 전력이었다.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이적한 김태균이 FA 선수가 돼 안방 중심을 잡았다. 경험과 파이팅을 바탕으로 젊은 마운드를 이끈 그는 한국시리즈에서는 프로 첫 만루홈런을 장식하는 등 타석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선보였다.

‘기대주’ 한준수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안방 한자리를 차지했고, KIA는 공격형 포수 옵션을 갖추게 됐다.

수비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는 한승택도 있는 등 KIA는 풍성해진 포수진으로 빈틈없이 시즌을 풀어가면서 우승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덕분에 지난 시즌 다시 팀에 합류한 타케시 코치는 2번째 우승 반지를 차지했다. 주니치 주전 포수

로 활약한 ‘레전드’ 타케시 코치는 2015시즌부터 2018시즌까지 KIA 포수들을 조련하면서 2017년 우승 멤버가 됐다.

그리고 KIA로 복귀하자마자 다시 또 ‘우승 코치’가 됐다.

타케시 코치는 “17년에 이어 또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 연속 우승은 없었으니까 다시 우승을 하고 싶다. 올해 찬스가 왔으니까 연패를 하면 좋겠다”며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멤버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연패 의지를 다졌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한준수의 역할이 컸다.

타케시 코치는 “준수가 생각 외의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김태균과 함께 좋은 활약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에도 김태균을 중심으로 안방이 돌아갈 예정이지만, 한준수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연패를 위한 필수 조건 역시 한준수의 성장이다.

타케시 코치는 “방망이에 자신감 있는 선수였는데 타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점점 컨디션을 끌어 올리면서 그 영향이 수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타격이 좋으니까 시합수도 늘었다”며 “아직 수비 면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매력적인 선수다. 올해도 김태균이 메인으로 가겠지만 한준수가 작년보다 더 시합에 나와서 더 많은 활약을 해주어야 한다. 그게 연패의 필수 조건이다”고 말했다.

긴 시즌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내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승택의 역할도 필요하다.



KIA 타이거즈 포수들이 연패 달성을 위해 필승 의지를 다졌다. 왼쪽부터 김태균, 타케시 코치, 한승택, 한준수.

타케시 코치는 “수비면에서는 확실히 한승택이 가장 안정감 있는 선수라고 본다. 한승택이 활약해 준다면 팀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쟁 효과를 기대했다.

포수들에게 캠프는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중요한 시기다. 투수들과 불펜 피칭을 함께 하면서 전체적인 전력을 살피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세밀함도 더할 수 있는 시간. 옆에서 꼼꼼하게 투수들을 지켜본 타케시 코치는 “무서울 정도로 마운드 전력을 이

야기했다.

타케시 코치는 “무서울 정도로 투수 상태가 좋다. 투수안에서도 좋은 경쟁이 있는 것 같다. 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플러스다”고 KIA 마운드 분위기를 전했다.

타케시 코치는 더 막강한 마운드를 만들기 위해 도루 저지와 피치 클락을 키워드해 포수들을 이끌어갈 생각이다.

타케시 코치는 “수치상으로 도루 저지율이 떨어

졌기 때문에 캠프의 우선 과제로 신경 쓰고 있다. 한국 야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뛰는 리그다. 그계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루 저지를 생각하고 있다. 도루 저지율 수치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올 시즌 피치클락이라는 익숙지 않은 요인도 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나 캠프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고 막강 마운드를 위한 포수 조의 과제를 이야기했다. /글·사진=wool@

‘아침 16강’ 확정 광주FC “재밌는 경기 하겠다”

18일 광주서 태극 부리람전

16강은 확정했지만 광주FC의 목표는 ‘재미있는 승리’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태극 부리람 유니티드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8차전 홈경기를 갖는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다.

광주는 지난 11일 산둥 타이산 원정에서 1-3패배를 기록하고도 16강을 확정했다. 첫 ACLE 무대에서 16강 티켓까지 차지한 광주는 지난 15일에는 수원FC와의 K리그1 개막전을 치르는 등 빠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결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승리’를 목표로 한 광주는 ‘재미’까지 다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일단 다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선수들에게는 즐겁다.

오는 4월 상무 입대를 앞둔 박태준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고 재미있다.

박태준은 “출기는 하지만 재미있다. 경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4월에 군대를 가야 한다. 8경기가 남았는데 절실하게 하고 있다”고 웃었다.

‘주장’ 이민기도 재미있는 경기를 예고했다.

이민기는 “16강 확정을 한 상황이지만 결과 상관 없이 이번 경기에서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것 얻어

가야 한다. 리그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준비단단히 하고 있다. 그만큼 재미있는 경기 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경기에서는 골도 기록했던 이민기는 패배에도 수확은 있었다고 말한다.

이민기는 “운도 따랐지만 노력한 것들이 쌓여서 그런 골이 만들어졌다. 선수들끼리 연습했던 과정이나와서 결과로 이어졌다. 골 넣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를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실점을 한 게 아쉬웠다”며 홈에서의 최종전은 아쉬움 없는 승부를 다짐했다.

부주장 이강현도 즐거운 승부를 기다리고 있다. 연습경기에서 입은 부상으로 산동전을 지켜보아했던 그는 수원FC와의 개막전을 통해 2025시즌 기지를 폈다.

이강현은 “산동전이 첫 시작이었었는데 함께 하지



광주FC 선수들이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태극 부리람 유니티드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8차전 홈경기를 앞두고 훈련하고 있다.

못해서 아쉬웠다. 첫타수를 못 뺐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부상 회복 빨라져서 개막전 뛸 수 있어서 감사했다. 기쁘고 설레는 기분이다”며 “늘 하는 대로 우리 축구 잘하기 위해서 골 날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했다. 16강 진출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뛰자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매 경기 소중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하던 스타일대로 공격적으로 축구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부리람 선수들을 힘들게 할 것인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겠다”고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계아시게임 감동, 전국동계체전으로

18~21일 강원서 개최...광주·전남 등 17개 시·도 4855명 참가

국내 최대 동계 스포츠 축제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총 48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8개 종목(빙상, 바이애슬론,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에서 열린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전남 선수단이 펼칠 활약에 기대가 쏠린다.

광주시체육회는 빙상 등 6개 종목에, 총 11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종합 13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최근 토리노 동계U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이애슬론 최수린(광주교대 1년)과 산악 스피드 최민준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광주는 사천경기로 치러진 빙상에서 장운우(성덕중 1년)와 나건욱(태봉초 6년)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흘린 땀이 결실을 맺을 소중한 기회”라며 “부상을 조심하고 사천경기에 이어 승전보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는 루지를 제외한 7개 종목에 193명(선수 112명, 경기인원 41명, 본부인원 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전남 선수단은 강세 종목인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알파인 등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며 목표를 종합 8위로 세웠다.

특히 바이애슬론에서는 지난 103·104·105회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한 티모페이 랍신과 최근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스피린트 금메달과 계주 은메달을 획득한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가 출전해 또 한번의 금빛 질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3년 연속 5관왕을 차지한 조다은(화산제일중 3년), 산악에서는 최근 ‘2025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과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영진(울출마당산악회)의 활약이 주목된다.

전남도체육회 송진호 회장은 “전남체육의 명예를 걸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길 바란다”며 “전남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도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식은 18일 오후 5시 강원 평창 모나호텔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열리며, 대회는 21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

페퍼스, 창단 첫 ‘10승’ 고지 밟을까

V리그 9승19패로 6위... 19일 광주서 정관장 상대 기록 도전

현대캐피탈의 ‘조기 우승’과 페퍼스의 ‘10승’에 V리그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새로운 한 주를 맞는 도드람 2024-2025 V리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팀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25승 3패·승점 73)다.

현대캐피탈은 18일 오후 7시 안방인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2위 대한항공 점보스(17승 11패·승점 52)를 상대한다. 남자부 정규리그 조기 우승 확정이 걸린 경기다.

올 시즌 1위를 놓치지 않고 독주를 이어온 현대캐피탈은 현재 2위와 승점 21점 차로, 이날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꺾으면 1위를 확정한다.

이날 현대캐피탈이 폴세트 승을 거둬 승점 2를 얻으면 승점 75가 되면서 두 팀은 23점 차로 벌어진다. 대한항공이 남은 7경기에서 모두 셋아웃 승리를 거둬 21점을 추가한다고 해도, 승부를 뒤집지

못한다.

현대캐피탈은 ‘남자부 역대 최단 기간 우승 확정’이라는 자체 기록 경신도 노린다. 현대캐피탈은 2017-2018시즌 4경기를 남겨두고 최단 기간 우승을 확정했다.

8경기를 남겨둔 현대캐피탈이 7시즌 만에 남자부 정상에 오를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자부에서는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10승 달성’이 관심사다.

현재 페퍼스는 9승 19패(승점 27)를 기록하며 6위에 자리하고 있다. 페퍼스는 지난 5일 GS칼텍스를 상대로 폴세트 승을 거두고 ‘구단 최다’ 9승을 기록했지만 이후 9일 흥국생명전과 14일 현대건설전에서 1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이번 시즌 페퍼스는 개막전 승리, 첫 3연승, 첫 6승이라는 구단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만년 꼴찌

에서도 벗어나 새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페퍼스에는 ‘창단 첫 10승’이라는 고지가 기다리고 있다.

페퍼스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의 경기를 통해 10승 달성과 연패 탈출을 노린다.

올 시즌 정관장과의 상대 전적은 1승 3패로 수월한 상대는 아니지만 블로킹으로 승부를 끌어붙인다.

정관장과의 승부에서 페퍼스가 유일하게 앞서 있는 기록은 블로킹(28-24)이다. 미들 블로커 장위는 세트당 블로킹 0.83개로 동일 포지션인 상대 정호영(0.50개)에게도 근소하게 우세하다.

페퍼스는 정관장 외국인선수 부키리치를 상대로 블로킹 성공률 26.67%를 기록 중인 장위를 앞세워 공격을 끊고 흐름을 가져와야 한다.

‘막내의 반란’에 적신호가 켜진 페퍼스가 ‘상대 쌍포’ 메가와 부키리치의 공격을 틀어막고 10승 고지를 밟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아이스클라이밍 이영진